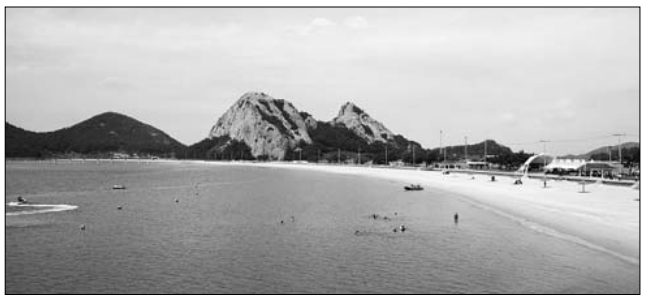
8월에 가볼만한 곳 '군산 선유도' 선정

새만금방조제-선유도-장자도 잇는 고군산연결도로 개통 휴가철 인기 피서지로 각광



군산 선유도가 한국관광공사 선정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유람선여행(수상레포츠), 8월에 가볼만한 곳'에 선정됐다.

군산 선유도가 한국관광공사 선정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유람선여행(수상레포츠), 8월에 가볼만한 곳'에 선정됐다.

군산 선유도가 한국관광공사 선정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유람선여행(수상레포츠), 8월에 가볼만한 곳'에 선정됐다.

선유도는 고군산군도의 중심 섬으로 섬 북단에는 해발 112m의 선유봉이 있으며, 그 정상의 형태가 마치 두 신선이 마주 앉아 바둑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 선유(仙遊)도라 불린다.

지난해 12월 새만금방조제와 선유도, 장자도를 잇는 고군산연결도로가 개통돼 차량 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여름 휴가철 인기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선유8경 중 하나인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천연모래 백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어 가족, 연인끼리 오붓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오는 15일까지 관광객을 맞이한다.

이와 함께 섬과 섬을 연결해 700m의 바다를 횡단하는 '선유스카이 SUN라인'은 공중하강체험시설로 선유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짜릿한 해양레포츠 체험을 제공한다.

또한 선유도에는 봉우리들과 어촌 마을들을 둘러보는 구불길이 조성되어 있어 남악산 대봉 구간, 선유봉 구간, 명사십리 해수욕장 구간으로 나눠져 섬 풍경을 배경 삼아 걸을 수 있다.

특히 선유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대봉에 오르면 북쪽으로는 춘장대 해수욕장, 남쪽으로는 변산반도를 조망할 수 있다.

군산시는 선유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주차장 및 진입로를 확충하고 공중화장실 3개소를 설치했으며, 해수욕장 주변에 샤워장, 야외무대, 파라솔 등을 설치해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에는 선유도 해수욕장 광장에 안개를 이용해 주변온도를 낮춰주는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 쾌적함을 높여주고 주변의 조형물과 함께 어우러져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섭 관광진흥과장은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 이후 선유도 여행에 대한 문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선유도 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시농업기술센터, 현장방문 통해 소통 행정

김병래 소장, 농업인들 애로사항 직접 청취 '구슬땀'

군산시농업기술센터로 새롭게 부임한 김병래 소장이 현장방문을 통해 소통 행정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소장은 지난달 부임 직후부터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 내 주요사업장과 농업 관련 단체 등 현장 곳곳을 누비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농업인들은 "군산시의 복지 및 문화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치며 출중한 역량을 갖춘 신임 소장인 만큼 지역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병래 소장은 "연일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시설 내 차광시설 설치 및 관수작업으로 농작물과 가축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온도가 높은 한낮(오전11시~오후4시)에는 농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시길 바란다"며 "항상 배우는 자세로 농업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농업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소통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파악한 애로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마련해 지역농업인들과 함께 나아가는 군산농업기술센터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신청추진

500여대 8억여원 추가 사회적공헌·약자 30% 1톤 이상 화물차 40% 일반 30% 기준으로 지원

익산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으로 500여대에 8억여원을 추가지원하기로 하고,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사업이다.

이에 해당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차량 중 익산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를 지원한다.

또한 조기폐차대상차량 확인서상 자동차의 상태 점검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로, 정부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고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조금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적용해 차종과 연식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까지, 3.5톤 이상이고 배기량이 6000cc를 초과한 차량은 최대 77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상반기 때 294대에 3억2000여만원을 지원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공헌·약자 30%, 1톤 이상 화물차 40%, 일반 30%로 배정물량을 설정해 각 분야별로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 공헌·약자 및 화물차 신청자가 배정 물량에 미달 시 일반 참여자에 배정·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김용호 녹색환경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홈페이지(www.iksan.go.kr)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현장간부회의 통해 농정분야 주요사업장 점검

군산시는 2일 오전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농정분야 주요 사업장 및 전반적인 추진사업들을 점검했다.

강임준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20여명은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 및 지역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 지역 농업인들이 처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와 국산맥아 및 엿기름 제조시설을 방문해 사업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견학하며 관계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군산시는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가공식품을 지역에서 소비해 농산물 가공의 부가가치를 농가에 환원하는 지역 순환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완성도 높은 '로컬푸드'를 실현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상반기 학교급식에 쌀·생강 조청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잼류, 참기름, 제과제빵 제품에 대한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해 전략적인 지역농산물 가공제품을 상품화하고 있다.

또한 국산맥아 및 엿기름 가공 특화사업을 위한 제조시설 신축을 8월 중으로 완료하고 관련 장비들을 설치하여 올해 안에 시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강임준 시장은 "국산맥아 및 엿기름 제조시설과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며 "안전한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농업인 직접 가공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소방서,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심리상담실 운영

익산소방서(서장 김봉춘)가 "8월부터 11월까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예방을 위해 전직원들 대상으로 하여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상경험이 많은 소방공무원들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의 고위험군이 많았고 이로 인한 자살 생각도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익산소방서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전 소방공무원(248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회복탄력성 형성과 스트레스 예방·관리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한다. 이번 년도에는 소방심리지원단이 구성됨에 따라 좀 더 심층적으로 진행되어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익산=우병희기자

익산시청사 에너지 위기 단계별 대책 추진

익산시는 하절기 에너지 사용량에 따른 청사 에너지 위기 단계별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폭염이 주요원인이 되어 전력수급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전력수급 위기시 정부의 단계별 조치사항인 냉난방기 사용 중지 등의 고통을 분담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평시에는 건물 실내온도를 26~28℃이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조명을 소등하며, 노후이 등 근무복장 간소화를 추진하는 등 전기기기의 합리적인 이용을 추진한다.

또한 비상조치단계인 예비력 300kw미만 주의단계시 냉방기 사용중지, 사무실 조명 50%이상 조명 소등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경계단계(예비력 200kw미만)시에는 필수기기를 제외한 모든 사무기기의 전원을 차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산하 소속기관에 대한 실내온도 등 준수여부, 절전통보시스템 전파체계와 이에 따른 이행조치사항 준비 등 자체점검을 통해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부분의 자발적인 절전 참여 및 전기기기의 합리적 이용 등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에너지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폭염 대비 읍면동 노인복지 담당자 회의 열어

군산시는 2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읍면동 경로당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염대비 노인복지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특보에 따른 무더위쉼터 경로당 운영 및 협조사항을 안내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후서기 운영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에서는 여름철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범정부 합동 폭염 종합대책에 따라 무더위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무더위쉼터가 적정 실내온도(26~28℃)를 유지하고 야간, 주말 및 휴일에도 운영이 가능한 쉼터로 적극 개방할 수 있도록 경로당 담당자들에게 안내했다.

/군산=김정훈기자